

전북도 산림박물관, '나무의 숨결'展

5월 31일까지 전통기법 이용 장인 목공예작품 30점 전시

전북도 산림박물관이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특별전 '나무의 숨결'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산림박물관 소장품 중 전통 기법인 '짜맞춤'을 이용한 목공예 30점으로 구성했다. 작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안방가구, 사랑방가구, 부엌가구 중심의 전통 목가구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도 전통 민속품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작품 중 '이층능', '경대'는 조선시대 사회와 단절된 여성에게 비중 있는 기물로 사계절의 의복을 정리하는 안방가구로, 목재의 결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 소박하고 은은한 기품이 담겨있다. '문갑'과 '책장'은 정통적으로 선비의 숭상 공간인 사랑방 가구로, 선비의 높은 뜻과 지조, 청빈의 삶을 반영하는 기물이다. 목재는 선비의 정신을 대변하는 적절한 소재로 순수한 자연무늬, 부드러운 질감은 그들의 삶과 닮아있다. '소반'은 유구나 자기의 식기류를 운반하는

부엌가구로 가볍고, 탄력있게 제작됐다. 상판의 크기는 부녀자의 어깨넓이 보다 약간 넓게 하여 운반을 용이하게 하였고 주로 은행나무를 이용했다.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은 '계절별 특별전시'와 '테마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의 문화예술 향유에 노력하고 있다. 여름철(6~8월)에는 '한지부채전', 가을철(9~11)에는 현대미술로 풀어진 '마음을 읽은 풍경'전, 겨울철(12~2월)에는 '세계사에전북 비엔날레 소장품'展이 예정되어 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가을철(10.18~11.21)에는 개막 시간을 연장(당초 10:00~18:00에서 9:00~18:00)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특별전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전통가구의 예술성과 기품있는 정서를 전달하여 문화감동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물관 입



까치호랑이가 작품.

장 전 발열 검사 실시, 마스크 착용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순창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개최

연습·회의 등 위한 주민자율공간·공연장·북카페·전시공간 등 조성

순창군이 16일 '순창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순창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순창 장류박물관 사무실로 쓰던 2층 규모의 건물을 새단장에 조성했다. 개관식에는 황승주 군수, 신용균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참석 인원 최소화과 좌석 띄워앉기, 손소독, 개인방역수칙 등을 준수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새단장한 생활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개관식 축하공연으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장구난타 공연과 어쿠스틱 밴드 공연이 꾸며졌다. '순창 생활문화센터'는 국비 3억원, 군비 4억 5,000만원 등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장류박물관 건물 내 유휴공간(600㎡)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지상 2층 규모인 이곳은 1층에는 주민 스

로 참여하는 생활문화 창조 공간으로 교육장과 동아리활동을 위한 소규모 연습·회의 등 주민자율공간이 조성됐으며, 2층에는 다목적홀로 공연장과 북카페, 전시공간을 만들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으로 지역의 1,000명이 넘는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의 연습공간과 무대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어 이들의 활동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지역민이 연습공간과 전시실을 활용해 각자 문화역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군민 문화강화 프로그램 운영해 군민들이 찾는 센터로 발돋움해 나갈 방침이다. 황승주 군수는 "문화활동을 원하는 군민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상설공연·목요다락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상설공연 '담판'을 3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목요다락'을 목요일 오후 7시에 펼친다. '담판'은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장)과 원기중(문학박사)의 진행으로 명창들의 소리와 함께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판소리의 정확한 의미와 사설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3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네이비 오디오클럽을 통해 온라인 공연 서비스도 운영한다. 오는 24일은 진행자의 이야기로 단가(사철가), 고국산천~초동신세까지 대목을 선보이고, 전문명창은 정준호 교수와 함께 미산계수궁가의 섬세한 감성표현과 사실 전달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25일 '목요다락' 무대는 양길순의 명무동행(名舞同行)으로, 전통춤의 외길 인생을 함께 걸어온 춤꾼들의 '동행' 무대가 예향의 고장 남원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양길순(살풀이춤 예능보유자)과 무용단 전수자들의 도살풀이춤을 시작으로 채성묵(승무 예능보유자), 김근희(경기검무 예능보유자), 박재희(태평무 예능보유자), 송재영(심청가 전수교) 명인과 함께 명무들의 예술혼을 불태운다. 예약은 카카오톡채널과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하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 지원

2021년, 아홉 번째 개최를 준비 중인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를 함께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 24시까지 영화제 홈페이지(mjf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영화제 전 기간 동안 활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및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12일 이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하게 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에게는 활동 기간 내 숙식 제공은 물론, 영화제 공식 유니폼 및 기념품과 활동 종료 후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원활동가 '산골친구'와 함께 영화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골친구'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코로나19 선별 검사 및 개인 방역 수칙 교육, 숙식 위생 관리 등 세심한 방역 대책을 마련, '산골친구'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매해 관객 안내 및 응대, 상영관 운영, 행사 지원 등 무주산골영화제 현장 곳곳에서 관객들에게 다정한 친구이자, 영화제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해 주고 있는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모집에 열정 가득한 이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 참고 및 '산골친구' 담당(063-245-6400 /mjuffilmfest@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6일까지(4일간),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3일간) 총 2주에 걸쳐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를 함께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

전주문화재단-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업무협약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육선)은 16일 팔복예술공장 세미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총재 박병익)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전반의 문제 등을 동반자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술가들의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환경의 예술가 육성·지원사업 공동기획과 추진 ▲생태예술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 협력과 추진 ▲시민들의 문화권 향상에 관한 상호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연대 등이다.

백육선 대표이사와 박병익 총재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공동체의 미덕이 발휘되는 사회, 영광과 포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